

무자격 조합원에 배당금 안동봉화축협 물의 빚어

비상대책위, 안동봉화축협
대구지점 안동지청에 고발



27일 김창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안동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봉화축협 무자격자 조합원 정리 문제' 등을 발표하고 있다.

안동봉화축협이 수년간 무자격 조합원들에게 배당금과 상품권을 부당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특히 축협중앙회 정관에 따라 매년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중앙회 정관 대신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에 따라 일부만 선별정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안동봉화축협 무자격 조합원 불공정 정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호)'는 안동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또 이 문제와 관련, 안동봉화축협을 이날 대구지점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대책위 및 안동봉화축협에 따르면 안동봉화축협은 지난 21일 열린 제16회 이사회에서 '무자격 조합원 정리'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는 축협중앙회 정관 제11조 제2항에 큰

거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이 과정에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무자격 조합원 426명 모두를 정리하지 않고 213명만 선별처리했다.

또 매년 결산 후 각 조합원들에게 4%에 해당하는 출자 배당금을 비롯해 조합원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해 왔다.

무자격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2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수년간 상당한 규모의 배당금과 상품권이 부당하게 지급돼 안동봉화축협에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

실제 작년 말 기준 무자격 조합원은 509명으로 조사됐다. 축협 측은 이들을 정리하지 않은 채 지난 3월 이들에게도 배당금은 물론 상품권도 1억 원 이상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봉화축협의 이 같은 불법은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15년간 지속됐다.

2004년 이사회를 열어 상위법을 무시한 채 무자격 조합원 규정을 '3년 이상 축산업 미종사자'로 확대했다.

축협중앙회 정관은 '1년 이상 축산업 미종사자'를 무자격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축협의 무자격 조합원 정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감독기관도 이를 묵인하면서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동봉화축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04년 이사회에서 무자격자 기준 1년은 너무 짧고, 이럴 경우 조합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3년으로 늘렸다"며 "최근 중앙회 및 조합원들의 지적이 있어 다음달 이사회 때 절차를 밟아 정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김용구 기자



딸기 수확하는 부부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린 27일 오전 충북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신홍식·이미화 씨 부부가 시설 하우스에서 하이베드 방식으로 키운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옥천군 제공)

노조 와해·각종 비리 의혹...대구엑스코 '시끌시끌'

김상욱 사장 한 달째 조사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돼

<5면에 계속>

김상욱 대구엑스코 사장이 노조탈퇴 강요 등 노조 와해공작을 한 혐의로 대구지방고용

노동청으로부터 한 달째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대구엑스코 노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달 26일 노조로부터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피소됐다.

김 사장은 지난 2017년 5월 엑스코 과반수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팀장을 시켜 노조원 7명을 탈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는 김상욱의 노조탈퇴 강요행위에 대한 녹취록 등의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노동청에 제출한 상태다.

김 사장은 이밖에도 직책보조비 체불, 연차수당 지연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체불, 명절선물 지급중지, 승진인사 지연실시 등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전횡을 저질렀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뉴스

대구시, 위기의 자동차부품업계 살린다

지역 자동차부품업계 지원방안
금융지원, 수출판로 개척 지원 등

대구시는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자동차부품업계 감당회 결과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반영해 '지역 자동차부품업계 활력제고 지원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번 지원 방안은 국내 완성차 생산량(내수)감소,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동차부품업계가 주요 현안으로 건의한 △금융지원 △수출판로 개척지원 △미래자동차·전통산업 R&D분야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기 유동성 극복 지원을 위해 자동차부품업계 지원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300억원

을 신설하고 정부 신규 자금과 연계한 지역 자동차업계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자동차부품기업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타깃 국가를 선정, 개별 기업에 맞춤형 마케팅 서비스(맞춤형 시장 개척단)를 제공함으로써 수출판로 성과 극대화를 노리는 한편 해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 전시회 지원과 해외 바이어 발굴·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와 대구 국제기계산업대전 등 지역에서 개최하는 글로벌 전시회를 통해 최신 기술 동향 공유,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과 함께 해외 바이어 초빙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중점 육성 중인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 현재 연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1분기에 범정부 자율차 예타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영은 기자

대구예술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학생들은
재단의 책임 촉구하며
학내 비리 규탄 집회 가져

학생들의 집단 자퇴서 제출 등 심각한 학내 분규가 벌어지고 있는 대구예술대학교에서 학교 측의 갑질에 항의하는 유서를 남기고 한 교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교수·교발과 집회가 이어지는 등 장기화에 돌입했다.

대구예술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과 학생들은 27일 오전 9시 대구시 중구 동인동 세기보정기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수의 죽음에 대한 학교와 재단의 책임을 촉구하며 각종 학내 비리를 규탄했다.

이 학교 시각디자인학과 한덕환(56) 교수는 지난 22일 오후 8시께 대학 건물 3층 복도에서 숨진 채 동료 교수에게 발견됐다. 한 교수는 A4 용지 3장 분량의 유서를 통해

학교 측의 부당한 탄압 등 갑질과 학위장사 등을 거론하며 '용서가 안 된다'고 했다.

지난 수개월 동안 학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교수협의회와 학생들은 대구예술대가 전국 대학 중 최상위 등록금을 내는데도 교수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돈을 받고 있으며 문자협박과 부당한 탄압·징계 등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선고 받은 교수가 사표를 써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계속 지급되고 교비 손해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차하지 않는 등 학생들을 위해 쓰일 교비가 마구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학교는 부당한 이유를 들어 교수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물론 고분고분하지 않은 교수에 대한 길들이기식 묻지마 징계를 남발해 이번 한 교수의 불행한 사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상직 교수협의회 의장은 "학교에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학교와 재단 측은 그 누구도



대구예술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과 학생들이 27일 오전 대구시 동인동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책임지지 하지 않고 있다"며 "한 교수가 학교의 갑질 횡포와 마녀사냥식 조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대해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교수가 자신의 귀한 목숨을 끊으며 비민주적 대학권력의 만행을 세상에 고발했다"며 "우리가 한 교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학교와 재단의 온갖 전횡과 그 부당한 함에 항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노균 기자

www.kepco.co.kr

건강의 최적온도

±5°C

실내온도와 바깥 온도 차이를 줄이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온도 차가 크면 감기에 걸리기도 쉽고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여름엔 최대 5도 낮게, 겨울엔 최대 5도 높게.
에너지도 아끼고 건강도 지키는 지혜로운 비결입니다.

“대구·경북 상생협력의 원년 만든다”

권영진 대구시장 신년인터뷰



최우선 목표는 민생경제 살리기와 미래산업 육성
인사·조직·일하는 문화 혁신 통해 시정 혁신 완성
통합신공항 최종이전부지 선정에 모든 역량 집중
취수원 이전 문제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구-구미가 함께 재도약하는 기회로 삼을 것
남북교류 업무 총괄 관련 정책 제도 수립 등 추진

선 목표는 민생경제 살리기와 미래산업 육
성이다. 현재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을 나타
내는 지표들이 2019년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렵고 고단해 질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골목경제와 전통산업이 다시금 활기를 되찾
아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
록 지원을 확대하고 자영업과 중소기업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이 보호받고 재
기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따뜻한 지역 공동
체를 만들어 가겠다. 그동안 착실히 준비해
온 산업구조 혁신의 토대 위에 5대 신성장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이 알찬 열매
를 맺을 수 있도록 힘 없이 전진하겠다.

또한 시정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올해 인사혁신, 조직혁신, 일하는 문화 혁신
을 통해 시정 혁신을 완성하려 한다. 지난 11
월 내부혁신의 첫걸음으로 신인사혁신 프로
젝트를 발표했었고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
행했다. 불필요한 업무줄이기를 시작으로 칸
막이 없는 협업을 활성화해 효율적으로 일
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성평등과 상호존중
의 건강한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
부터 솔선수범하겠다. 아울러 대구·경북 상
생협력의 실질적 원년으로 만들겠다. 대구
경북상생 장터 개설, 대구·경북 공동 관광기
급 조성, 공무원교육원 통합, 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 공동추진 등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대구·경북 상생협력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함께 가
야할 로드맵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
는 대구·경북의 힘을 다시 보여드리겠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계
획은.

“국방부가 작년 3월 ‘군위 우보’와 ‘의성 비
안·군위 소보’ 2개 지역을 이전후보지로 선
정한 후 대구시는 최종부지 선정의 첫걸음
으로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
하고 지난 8월 군위·의성 두 자치단체와 지
원사업 규모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12월 12일 대구시장, 경북도지사가
국방부 장관을 만나 최종이전부지 선정 절
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
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이전사업비 규모
문제는 우선 국방부가 최종이전부지를 선정
하면 대구시가 기본계획 등을 통해 보다 정
확한 사업비를 산출한 후 추가 논의하는 방
안을 제안했다. 최종 이전부지 선정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는 있지만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대구·경북의 사활이 걸린 최대 현안
사업이라는 인식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번
사업의 분수령이 될 ‘최종이전부지 선정’에
우리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새해 취수원 이전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계획인가.

권영진 대구시장은 27일 오전 대구시청
접견실에서 가진 뉴시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대구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
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내년엔 민생경제 살
리기와 미래산업 육성, 시정혁신은 물론 대
구경북 상생협력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부지
선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취수원 이전
문제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구와 구
미가 함께 재도약 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
라고 말했다.

이어 “분단국가라는 현실과 경제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지금 우리의 시대정신은
통일 대한민국과 분권 대한민국 일 것”이라
며 “체계적인 남북교류사업을 계획·추진해
통일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
했다.

다음은 권 시장과 일문일답.

-시민들에게 드리는 새해 인사와 소
감은.

“희망찬 2019년 기해년 새해 더욱 건강하
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 함께 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해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대구공방
이용객 400만명 돌파, IMC그룹 투자유치, 대
구FC FA컵 우승 등 의미있는 성과들도 있었
지만 세계적 경기침체로 지역경제에도 어려
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역의 자
영업, 중소기업을 포함한 서민들의 근심이 더
욱 깊어진 데 대해 시장으로서 아쉬움이 크
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대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세
계로 미래로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는 것은 모
두 시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2019년 대구시가 역점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가.

“대구혁신 시즌2의 성공적 시작을 위해 3
가지 방향에 집중하겠다. 올해 시정의 최우

“대구취수원 이전이 대구-구미 간 이전으
로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무총
리 주재 관련 지자체장 회동을 통해 ‘낙동강
유역통합물관리’와 ‘구미국가산단 폐수무방
류시스템 검증’에 관한 정부용역 2건을 시행
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대구 물 문제
해결에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
번 용역은 중앙정부가 주관하고, 용역 과정
에 각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자문위원이 참
여해 객관적·과학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대
구-구미 양 도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
리적인 물 문제 해결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 용역과 동시에 대구시는 구
미시와 경제·문화·교통·시민단체 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사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 하나의 광역경제권을 구축하여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서 대구-구미가 함
께 재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최근 활성화 가능성이 높아진 남북교류
와 관련한 대구시 정책은.

“각 시대마다 국가와 민족에게 주어진 소
명과 과제가 있다. 분단국가라는 현실과 경
제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지금 우리의 시
대정신은 ‘통일 대한민국’과 ‘분권 대한민국’
일 것이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체
계적인 남북교류사업을 계획·추진해 통일시
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남북관계 개
선과 활성화를 보다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내년 1월 조직개편에 맞추어
전담 부서인 교류협력팀을 신설하고 남북
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 지원, 통일업무 전
반에 대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남북
교류 업무 총괄 및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
등을 준비하고 추진할 것이다.

남북의 공통된 관심사와 역사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남과 북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국제보상운동 기록물 남북공동 조사연구사
업’과 남북 간 상호호혜적인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다. 대구시의
강점인 뿌리산업의 진출과 함께 우리가 강
점을 가진 신 성장 산업분야의 교류협력 추
진을 기대한다.”

-끝으로 새해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2019년 한해는 우
리에게 질풍노도와 같은 엄혹한 한해가 예
상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절
박한 현실 인식과 담대한 도전 정신이다. ‘거
센 바람을 타고 만리의 거센 물결을 헤쳐나
간다’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자세로 위기
를 기회로 바꾸자. 저는 4년 전 대구혁신에
목숨을 걸겠다고 다짐했었던 그때 초심으로
돌아가 중단 없는 대구혁신을 이어가겠다.
든든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뉴시스

바르게살기운동 대구시협의회 회원대회 개최

내년도 사업계획·비전 공유
박용구 협의회장 ‘국민포장’



바르게살기운동대구시협의회(회장 홍성근)
는 27일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에서 회원 6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바르게살기운동
대구광역시협의회 회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바르게살기운동대구광역시협
의회에서 2018년 한해 동안 추진했던 바르게
살기운동 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사
업계획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올 한해 봉사활동으로 수고한 유공위
원에 대한 표창으로 사기를 앙양하고, 국민운
동단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짐하는 결의도
다진다.

협의회는 올 한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안전문화 생활화 교육, 도덕성회복을 위한 인
성교육, 영호남 달빛동행 한마음대회, 도시환
경 가꾸기, 나라사랑 운동, 영덕태풍 피해지역
복구활동, 소외계층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 대구광역시 동구협의회 박
용구 협의회장은 ‘국민포장’을 받는 영광을 얻
었고, 달서구협의회 이태순 명예여성회장은
대통령표창, 대구시협의회 이재경 부회장 외
6명이 장관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지역사회에 공헌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
구광역시 표창 18명, 대구광역시 시의회 의
장 표창 16명을 수여했다.

이 달 24일 새로 취임한 홍성근 바르게살
기운동 대구광역시협의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 해 동안 고생하신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
하고, 바르게 가족의 결속을 다지며 진실·질
서·화합의 3대 이념을 되새기고 실천하여 더
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
가지”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
역사회의 올바른 질서확립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시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내년도도 행
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만드는데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시, 출산가정 마더박스 지원

1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소득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 지원

신청일 기준 부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
에 있으며 대상아 또한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
지가 대구시에 있어야 한다.

대구시는 내년 1월 이후 모든 출생아에게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을 새
롭게 시작한다.

이는 출산초기 양육에 필요한 물품 지원을
통해 축하하고 출산가정을 격려하기 위해 마
련됐다.

대구시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출
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은 지난 9-10월에 보건
소 등록 임신부 및 영·유아 양육가정의 부모
1220여명을 대상으로 물품구성을 위한 선호
도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반영해 각 구·군별
로 마련한다.

지원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순위나 소득에 관계없이 대구 지역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
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각종 출
산급부 서비스와 동시에 가능하게 처리해 민
원인 편의성을 더한다.

출산가정에 양육을 돕기 위한 물품제공은
1930년대부터 시작한 핀란드 마더박스에서
유래했다.

사회 전체가 보내는 환영의 메시지로 개인
의 육아에 국가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허영숙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지역사
회가 다함께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보내는 마
더박스가 모든 출산가정에 따뜻한 감동으로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정책의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PRO BONO (For the Public Good)
PRO BONO는 '공익추구가 바로 최상의 수익모델'
이라는 대성그룹의 100년 비전입니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대성그룹이 앞장서겠습니다.

대성그룹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이끄는 대표적인 그린에너지 기업으로
세계 에너지부족국가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GEEP/나란 /인도 사업 에티오피아 사업 카자흐스탄 사업 방글라데시 사업

대성그룹이 환경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친환경비영리단체인 '더 그린 오가니제이션
(The Green Organization)'이 주관하는 '2015 그린 애플 어워즈(Green Apple Awards)'에서 2개 부문에 걸쳐
국제 그린 애플 환경 어워즈(International Green Apple Environment Awards)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철우 標 경북도정 6개월 탈권위, 소통, 혁신, 도전

기자회견... 2018도정성과
2019년 도정방향 설명
2019 경북도정 핵심가치
실용, 소통, 미래에 두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도정의 주요성과를 설명하고 2019년 도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취임 후 6개월 동안 도민만 바라보고 경북만 생각하며 정신없이 달려왔다"며 "부족함이 있지만, 민선 7기의 튼튼한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 곳곳에서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큰 보람"이라며 취임 6개월을 회고했다.

경북도는 지난 9월 3일, 도정 슬로건을 '새 바람 행복 경북'으로 정하고, 10대 분야 100대 과제 227개 세부시책으로 구성된 '도정운영 4개년 계획'을 조기에 확정된 바 있다.

아울러, 운동화와 점퍼가 트레이드 마크가 된 지사부터 권위를 내려놓고 격의 없이 소통하다보니, 도정 곳곳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정 조직을 일과 성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시켰으며, 혁신적인 인사를 단행해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었음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혁신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변화 사례다.

이철우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야 당대표, 장·차관 등을 수없이 찾아다니며 경북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했고 도움을 요청했다"며 "그런 덕분에 중앙정부가 경북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게 됐고, 정부의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철우 지사 취임 이후 경북의 현안 과제들이 많이 해결됐다.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이 다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영천경마공원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스마트팜 혁신벨리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경북은 선전했다. 올 한 해 경북이 따낸 공모사업은 총 109건에 총사업비 규모로는 1조 732억 원에 달한다.

이날 이철우 지사가 설명한 2018년 경북도정의 10대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둔 3조 6,887억원의 국비확보 △일자리 만들기 체계 구축과 3조 3,276억원의 투자유치 △저출생 극복 기반 마련 △경북관광기반 강화 △4차 산업혁명 기반구축 △스마트팜 혁신벨리

유치 등 경북농업 경쟁력 강화 △SOC확충과 지역균형발전 △대구경북 상생협력과 경북의 자긍심 고취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 성공 개최 △현장 중심의 이웃사촌 복지체계 등을 꼽았다.

특히, 국비 확보가 가장 눈에 띈다. TK패시이라는 논란을 겪을 정도로 정부예산안에는 경북 예산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국회의 과정에서는 경북이 선전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경북이 확보한 국비예산 총 3조 6,887억 원 중에서 4,685억원이 국회에서 증액된 금액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처럼 큰 폭의 증액은 이례적이다.

대구경북 상생협력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한층 강화하고 시지사 1일 교환근무, 실국장 교환근무 등을 통해 상생협력 발전 기틀을 닦았다.

아울러,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의 성공적 개최로 남북교류시대에 동해선으로 이어지는 신북방경제 교류 네트워크를 확대했으며,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받아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 경북도의 입지를 강화했다. 또한 올해 중국, 러시아 등 자매 우호 도시의 전략적 확대로 신북방-남방경제 시대를 열 기반을 구축했다.

공동체 기반의 복지와 도민 안전 체계도 개선됐다. 332개 읍면동의 복지허브화로 종합적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 복지에 집중했다. 특히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인 '찾아가는 행복병원'은 9,115명이 이용했고,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닥터헬기'는 240회 운용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켰다.

한편, 국가안전대진단으로 도 전반의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소방인력과 장비 보강으로 안전망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높였다. 경북에 큰 피해를 입힌 풍레이 태풍 이후에는 신속하게 대응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 냈고, 2,360억원에 달하는 복구비도 받아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018년 한해는 민선 7기 출발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 과정이었다면, 2019년은 민선 7기 출발의 원년"이라고 강조하며 도정 성과에 이어 2019년 도정방향과 경북형 핵심시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2019년 도정의 핵심가치인 '실용, 소통,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과제로 경북형 일자리, 농촌의 도시화, 미래산업, 문화관광, 복지, 농업, 정체성을 꼽았다.

특히, 200명으로 확대된 '도시청년시골과건제'와 일자리와 결혼을 연계한 '청년행복결혼공제사업', '월급받는 청년 농부사업', '초·중·고 전면의무급식', '어린이집 의무보육'과 함께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일자리와 저출생 극복을 강조하는 이철우 지사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내년도 핵심사업이 될 전망이다.

경북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자리와 복지가 연계된 '경로당 행복도우미'의 그림도 그려졌다. 내년에는 500명의 행복도우미가 배치돼 경로당을 마을 공동체의 커뮤니티와 복지 중심거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성용 기자



“재난대비! 느리지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안전취약 계층 23개소 이동안전체험교육 운영

경북도 소방본부는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평소 재난안전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인 특수학교, 보육원을 찾아가 119이동안전체험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도내 장애인 특수학교 및 아동보육시설 23개소

를 대상으로 지진 대응, 지하철화재 대응, 화재 시 승강기탈출, 연기미로 체형, 피난유도등 이용, 심폐소생술 실습을 내용으로 체험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 마을 재능기부로 매직콘서트도 함께 열어 아이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7일 안동 진명학교 초등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안전체험교육에서 학생들은

담까지 흘러가며 심폐소생술을 익히며 장애가 생명을 살리는 데는 전혀 문제없다는 것을

직접 보여줬다. 손진혁 교장 직무대리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해보는 안전체험 교육을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재밌어 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교직원과 함께 정기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창섭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이번 체험교육이 모든 학생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안전의 중요성을 배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소외계층에게 안전체험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

경북여성 일자리 꽃 피운 주역들, 한자리에 모이다



경북도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7일 경산에서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새일 워크숍 및 어워드'를 개최했다.

새일센터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사회에 진출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곳으로 경북도에는 광역새일센터를 포함해 총 8곳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연말을 맞아 '청년, 장애인 성악가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음악회'가 오페라 21세기 단원과 함께 열렸다.

박준범 기자

경북도 인사

- ◇과장급 전보 △일자리청년정책관 박성근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 △중소벤처기업과장 이근식 △생활경제교통과장 정중태 △자치행정과장 정진환 △문화예술과장 한재성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체육진흥과장 박승근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도영 △농업정책과장 임현성 △농촌개발과장 박동엽 △환경정책과장 강석준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산림산업과장 한승환 △사회복지과장 김성우 △노인복지과장 김중현 △식품의약품과장 직무대리 김정순 △

경북도·구미시, 구미 경제 활성화 긴급대책 논의

구미 5공단 이대로는 안돼 분양가 인하 방안 협의 SK하이닉스, 구미에 투자 호소

경북도와 구미시는 27일 구미시청 상황실에서 이철우 경북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김봉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이사를 비롯해 지역경제관련 기관·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SK하이닉스의 120조원에 이르는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계획에 따라, 지역 내 대기업의 투자방안을 협의했으며 구미 국가5단지 분양활성화를 위한 분양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SK에서 투자를 계획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규모는 2016년 3253억 달러에서 2018년 4273억 달러로 해마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들이 다양한 산업에 확대·적용되면 반도체의 수요와

발전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전체 수출액의 20%이상을 차지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산업개발정책과 반도체 산업의 수출호조에 따라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이러한 반도체 생산설비에 대한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예상됨에 따라, 반도체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지역에 분사가 소재하고 있는 SK실트론 등 대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앵커기업을 구미 국가5단지에 유치하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미 국가5단지의 분양가가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높아 분양이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분양가 인하 방안을 비롯해 분양대금 납부조건 완화, 입주보증 확대, 임대산업용지 조기공급, 국가5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다양한 분양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은진 기자



경북고향장터



www.cyso.co.kr

하늘과 땅 그리고 농부들이 권합니다.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하늘의 햇살과 땅의 싱그러움을 담아 정직한 농부들이 재배한 품질 좋고 우수한 경상북도의 농·수산물을 중간유통 단계없이 직거래로 소비자와 연결해주며 경상북도가 운영하기에 더욱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우리 먹거리 장터입니다.

1644-4245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로 안전한 먹거리 보장



文대통령, 농업인 초청 간담회... '농정혁신' 강조

140여명 참석...“힘센 소도 경운기 대신 못 해” 소년농부도 참석...대통령 앞에서 ‘흙에 살리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국 농업인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농촌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며 농정혁신 방안을 공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업인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성격이다. 또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하면서 농정혁신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정부의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을 비롯한 농정 개혁안에 대한 농업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밥상이 힘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농민조합총연맹, 한국농업중앙연합회, 귀농인, 여성농업인 대표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 당에서는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가,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등 관련 수석비서관이 각각 참석했다.

식은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정혁신 방향에 대한 발제 보고와 참석자 대표들의 의견 개진 순으로 진행됐다. 농업예산 감소, 쌀 목표가격 실현, 직불제 개편 등 다양한 의견도 공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농정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했다”며 “아무리 힘이 센 소라도 경운기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이끌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농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고 농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가치이자 농업 개혁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 직불제 개편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소 농민들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중심의 농촌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직불제 개편에 대해서는 격정도 많기에 농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도 “2019년도에는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과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어서 이 장관의 농정혁신 방향에 대한 발제 보고와 참석자 대표들의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 농정혁신 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공익형직불제 개편 △스마트 농

업 추진 △로컬푸드 활성화 △농촌 주거환경 개선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또 참석자들 가운데 김영재 ‘농민의 길’ 상임대표는 “먹거리 안전 공급과 생태 안전을 강조하는 공익적 농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현장의 농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농정을 구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낮은 소득 수준의 중소농을 두텁게 보호하는 직불제 개편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기계 가격 상승 등으로 대규모 농업인 또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병문 한국청년농업인연합회장은 “청년들이 농업강국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디지털 세대에 맞는 교육 및 지원과 함께 새로운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농업 예산과 복지 증진, 남북 간 농업 협력 추진, 미허가 축사 문제 해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조직 개편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고 고 부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간담회 마지막에는 ‘중학생 농부’ 한태웅 군이 직접 생산한 햅쌀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청년이 우리 농업의 미래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이번 행사에 초청됐다고 한다.

마이크를 잡았던 한 군은 “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약소하게 노래를 부를 겁니다”라고 운을 뚫 뒤 1970년대 가요인 가수 홍세민씨의 ‘흙에 살리라’를 구수한 장단에 맞춰 부르기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한태웅 군을 보며 한국 농업의 희망을 본다”며 최근 농림어업 분야에서 나타난 젊은층의 고용 상승 등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농업은 우리의 뿌리산업으로 살려나가야 한다”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시스

박재웅 전 위원장 “갈 사람은 빨리 가라”

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위원장



박재웅 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지난 26일 “갈 사람은 빨리 가라”고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학재 의원이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이후 ‘보수 대통합이 시작돼 모 의원이 탈당하면 경북의 누구도 행보를 같이 한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견제

하기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하지만 실상은 대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다가오는 총선에서 당성이 유리한 쪽으로 건너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잘못된 정권을 견제하고 단죄할 수 있는 것은 정치인이 모여 만든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의 힘”이라며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미 입증됐다”고 말했다.

특히 “눈치를 보다가 넘어갈 사람들이 바른미래당에 남아 있는 한 혼합정당이라는 오명을 떠안아야 한다”며 “이제 본인의 영달과 입신을 위해 떠나고 싶은 사람들은 더 이상 명분만들기, 시간끌기와 기회잡기를 위해 바른미래당을 흔들지 말고 일찍 나가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반드시 중심정치 세력으로 자리매김해 균형과 안정, 발전을 원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열망을 수행하겠다. 중도를 표방하는 중심정치를 경북에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용구 기자

손학규 “정개특위 연장 처리 큰 성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7일 “정개특위 연장이 오늘 처리되는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국회가 많은 성과를 내고 마치게 되는 것 같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정하는 거대양당의 발언도 있었지만,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국회에서 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다”라며 “의원정수에 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배분 비율을 2대1에서 최소한 3대1로 언급한 것 자체가 연동형 비례제 동의를 전제로 하는 거라 적지만 큰 진전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여야 원내대표, 막판 회동 ‘진통’

여야 교섭단체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오후에 추가로 회동을 갖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에서 청와대 사찰 의혹과 쟁점 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차를 좁히기 위해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날 원내대표들은 청와대 사찰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사찰 의혹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조국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요구했으나,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쟁점법안 논의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협의 외주화 금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은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끼리 오후에 별도의 협상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

유치원3법으로 불리는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차가 커 연내 처리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들은 오전 회동을 마치고 오후에 다시 만나 회동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개최도 오후 5시로 시간을 연기하기로 했다. 뉴시스

故 김용균씨 모친, 산안법 합의에 “정말 고맙다”

임이자 환노위 고용노동 소위원장에게 감사 표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는 27일 여야가 위협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일명 김용균법) 개정에 합의하자 “정말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 밖을 지키며 산안법 개정을 기다렸다.

김미숙씨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가 산안법 개정에 합의한 뒤 임이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에게 “정말 고맙다.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표현이 안 된다. 너무 고맙다”고 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마음을 담아서 했다. 마음이 무거웠다”며 “저도 잠을 못 잤다. 100% 만족하시진 않으시겠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김미숙씨는 전날 여야 논의가 공전하자 환노위 회의장 밖에서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죽은 아이 앞에서 고개를 들고 싶다. 그러려면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와 달라. 왜 회피하고 보고만 있느냐”고 호소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 과정에서 김미숙씨를 위로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미숙씨는 이날도 환노위 회의장 밖 의자에 앉아 얼굴을 파묻고 두 손을 모은 채로 여야 간 협상을 지켜봤다. 뉴시스

27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합의가 이뤄진 후 고 김용균씨 어머니가 한정에 의원에겐 인사하고 있다.

한편, 고 김용균씨는 공기기업인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그의 사망 이후 위협의 외주화 방지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됐다. 뉴시스



지역신문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지역신문발전위원회
Local Press Commission

지역신문을 보면 지역이 제대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을 제일 잘 아는 건 ‘지역신문’입니다.
지역신문을 읽는 당신,
내 고향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문구독, 아는만큼 ‘힘’이 됩니다.

무면허 운전자 상대 자해공갈단 덜미

경북경찰, 전국 돌며 고의로 자해사고 낸 뒤 1억 넘게 갈취 2명 구속, 1명 불구속 입건



전국을 돌며 무면허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자해사고를 낸 뒤 1억원을 넘게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면허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 자해사고를 낸 뒤 무면허 약점을 잡아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공동공갈)로 A(3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A씨 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B(57)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2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구미와 포항, 원주, 청주 등 전국을 돌며 무면허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자해 사고를 낸 뒤 14명으로부터 총 1억1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교도소 동기 및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운전면허가 취소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려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을 받으러 온 운전자들의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자해사고를 유발 후 상대방의 무면허 운전자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해 1인당 300만원에서 1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목색(미행조), 환자, 해경사 등 역할을 분담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현장답사, 예행연습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용구 기자

노조 와해·각종 비리 의혹 대구엑스코 '시끌시끌'

<1면에 이어>

대구엑스코 노조는 노사문제와는 별도로 지난 24일 김 사장을 국민건강보험법, 문서변조 및 동행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4월 A씨와 엑스코 자문역 계약을 하고 A씨에게 직장건강보험을 제공하려고 허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A씨는 자문계약에 따라 자문료 명목으로 엑스코로부터 매월 100만원씩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자문역할에 대한 보고서 제출도 하지 않아 부당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대구엑스코 재정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4월 시민단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문제됐으며 그 책임은 직원 B

씨에게 전가돼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박상민 대구엑스코 노조지부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지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김상욱 사장의 범법행위와 비리가 명백히 밝혀지고 엄벌에 처해 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기관인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엑스코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함께, 경영진의 불법행위와 비리, 공공기관 사유화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대구엑스코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홍보팀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뉴시스

통합신공항 최종 후보지 선정...의성·군위군 결의 다져

의성·군위군, 대구공항 통합이전 간담회 가져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예정후보지인 의성군과 군위군이 잇따라 공항 관련 간담회를 갖고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27일 의성·군위군에 따르면 성공적인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간담회가 전날 의성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통합신공항 의성군 유치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한탁 등 5명) 및 소보면 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류병찬) 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키 위해 마련됐다.

이재한 공항추진기획단장의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신공항 건설에 따른 발전저해요인을 최소화 해 군위와 의성이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새로운 발전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항공관련 산업 유치,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국방부와 대구시 간 이전사업비 이견 문제가 조속해 해결돼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군도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민협의회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통합신공항, 군민과 함께 준비합니다'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민·관 소통체계의 그간 운영 경과 보고에 이어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 추진상황 설명 및 토의 순으로 이어졌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민협의회(공동위원장 김화섭, 박한배)는 지난해 10월 8개 읍면, 주민 371명이 참여해 결성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 자리에서 "새해에도 흔들림 없는 의지와 열정으로 반드시 군위군이 최후이전지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122대대 정비중대장 박은아(학군41기·오른쪽) 대위와 102대대 정비중대장 선지형(공사63기·왼쪽) 대위

F-15K 첫 여군 정비중대장 2명 탄생

122대대 정비중대장 박은아 102대대 정비중대장 선지형

공군 11전투비행단(11전비)에 F-15K 도입 이래 최초의 여군 정비중대장 2명이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122대대 정비중대장 박은아(학군41기) 대위와 102대대 정비중대장 선지형(공사63기) 대위이다.

27일 11전비에 따르면 항공기 정비중대장은 완벽한 작전지원 태세 유지를 위해 항공기의 일일 정비·무장지원 감독, 작전지원 수행 능력 확인 등을 총괄한다.

또한 대대에 배정된 항공기 전체의 정비, 정비사들의 안전, 중대 병력관리까지 책임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평소 업무수행능력 및 탁월한 리더십과 업무에 대한 열정을 인정받아 도입 이

후 '첫 F-15K 여군 정비중대장'이라는 타이틀을 확보했다.

박 대위는 한국항공대학교 학군사관후보생 41기로 첫 여군 학군사관후보생이기도 하다.

또 임관 당시 전체 후보생 중 3등으로 임관해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박 대위는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 만큼 122대대 중대원들과 함께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열심히 그리고 안전하게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 대위는 지난 10월 미국 알래스카 아이슬슨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Red Flag Alaska 훈련에 군수팀원으로 직접 참가해 탁월한 영어실력과 업무수행 능력을 보여줬다.

선 대위는 "이제는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실 없는 최고의 102정비중대가 돼 완벽한 작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SNS 연인에게 돈 송금...‘로맨스 스캠’ 주의보

은행원 기지로 3천달러 피해 막아



대구 서부경찰서는 대구은행 북비산지점 이모(33·여)씨에게 로맨스 스캠 예방 공로로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대구 서부경찰서 제공)

"중요한 물건을 배송해야 하는데 돈을 보내라"

50대 A(여)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외국인 남성과 꾸준히 연락했다.

페이스북으로 말을 걸어온 이 남성은 자신

을 UN에서 근무하는 의사라고 소개했다.

A씨는 남성이 영어로 보낸 메시지를 자동번역기로 읽고 답하며 친분을 쌓았다.

어느 날 남성은 "중요한 물건을 배송해야 하는데 택배비가 없다"며 A씨에게 3000달러(한화 336만원 상당) 송금을 요구했다.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대구은행 북비산지점을 찾아 돈을 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원 이모(33·여)씨가 만류해 다행히 돈을 보내지 않았다.

이씨는 다른 피해 사례를 A씨에게 설명한 뒤 대구 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27일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을 예방한 공로로 이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A씨는 SNS 사용자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고 믿음을 갖게 한 뒤 돈을 요구하는 신종 금융사기인 '로맨스 스캠'에 당할 뻔한 것이다.

박권욱 서장은 "로맨스 스캠 사기꾼들은 SNS에서 주 타깃을 찾는다"면서 "외국인 남성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준범 기자

아사히글라스 노조원 대구지검 로비서 농성

"수사 마무리 촉구"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수사 마무리를 촉구하며 대구지방검찰청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27일 오후 12시 40분께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1층 로비를 점거했다.

노조는 2015년 7월 21일 불법 파견 혐의로 회사를 고소했다.

그러나 아직 수사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검찰은 8개월째 불법 파견 사건을 재수사 중이다"며 "담당 검사는 수사를 완료했지만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3년 5개월째 시간을 끄는 이유를 직접 듣고 싶다"며 "검사장의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계속 농성할 것"이라고 했다.

김대훈 기자

여자 친구 살해 용의자 검거

여자 친구를 살해한 30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1)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20분께 남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B(27·여)씨가 숨진 것을 친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B씨의 머리에서 부상이 발견되고 목이 졸린 흔적 등을 미뤄 보아 살해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해왔다.

특히 집 안에서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B씨와 교제하던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소제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울산 울주경찰서와 공조해 이날 오후 5시 5분께 울주군에서 A씨를 검거했다.

뉴시스

고속도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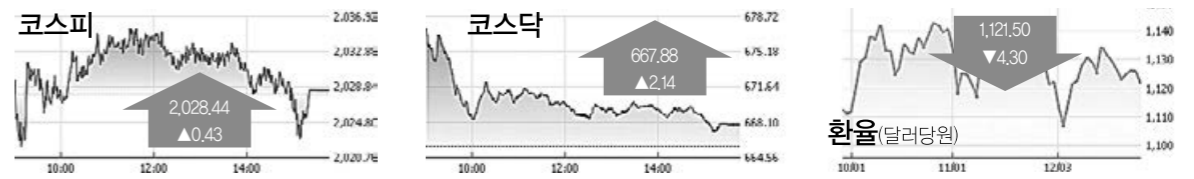
신의 한수

피곤할 때 **즐음센터**에서 한숨 자는 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깜빡 졸음이 짝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 중 피곤할 때는 **즐음센터**를 찾아주세요. 집안의 휴식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킵니다.

전국 223곳 **즐음센터**가 있습니다

즐음센터 설치 후, 한해 고속도로 사고 건수 7% 이상 감소 / 사망자 수 32% 이상 감소 (2017년 7월 기준)



경북우정청, 지역경제·문화 성장 플랫폼으로 자리잡다

농어민,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전년보다 19% 매출성장 견인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지역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한 몫 유포점 제작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경북지방우정청은 우체국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우수상품의 판로지원과 국내·외 물류비 지원, 수출 촉진 및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역민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농어민,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판로 지원으로 올해 177억원 매출 올려

경북지방우정청은 우체국 소핑이라는 신뢰도 높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구시, 경북도와 손잡고 지역의 우수 농수·특산물,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상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먼저 우체국소핑에 입점할 우수상품 발굴을 위해 우정청은 우체국소핑과 오픈마켓 MD를 초청하여 상품 품평회를 개최하고, 상품기획·판매관리 등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대구시·경북도와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농·수특산물, 중소기업상품 마케팅 예산을 지원받아 프로모션을 추진 한 결과 불과 6개월 만에 우체국소핑 판매실적은 177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9%(25억원) 성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정승 '해브는농장' 조옥래, 윤수경 대표는 "우체국소핑에 청송사과를 입점한 후 전국으로 상품이 팔리고 큰 인기를 끌면서 판매시장을

을 통한 판매수익보다 두배이상 증가 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10년 전 봉화군 재산면으로 귀농한 '햇살찬 산사과농원' 박덕순 대표는 지인을 활용한 소규모 판매를 주로 하였으나 우체국소핑에 입점하여 명절, 우체국소핑 직거래장터, 평일 특가행사를 통해 저장사과 모두를 판매해 1억 30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5배이상 증가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지난 5월, 경북도와 사회적기업 종합상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한정된 수요처와 상품 홍보·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 40개 업체를 우체국소핑에 입점하고 기업이 자생력을 갖도록 물류비 30% 할인과 판로지원으로 4억여원의 판매 성과를 거뒀다.

이 대표는 "우체국과 인연을 맺은게 가장 큰 행운이라며 지난 추석에는 밀려오는 주문 수량을 감당하지 못해 판매중지도 했지만 내년에는 철저한 사전준비로 설 명절을 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올해 7월 우체국소핑에 입점한 (예비)사회적기업인 그린벨트친구들 이재기 대표는 '버섯가루 즐겨찾기'를 출시하고, 추석특판에 위해 상품 디자인부터 홍보·판매 마케팅까지 우체국과 공동으로 추진한 결과 추석전후 20여 일만에 1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려 주위를 놀라게 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사회적기업의 온라인 판로지원뿐 아니라 사무용품, 구내식당 식자재, 선장품 등 구입 시 사회적 기업 제품 7억여원을 우선 구매하여 든든한 협력자로 동반 성장하고 있다.

■해외물류비 30%할인(5억여원), 수출신고 지원으로 수출중소기업 '기' '팍팍'



경북우정청 '버섯가루 즐겨찾기'



경북우정청 청송사과

우정청은 중국의 사드 여파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어려운 사업 환경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대구시, 경상북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381개사에 해외물류비 30% 할인(5억여원) 지원했다.

해외물류비 지원 사업은 우체국이 국제특송(EMS) 요금의 12%를 할인하고, 지자체가 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수출신고 필증 발급수수료 지원'을 11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하여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성장에 맞춰 중소기업의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이베이, 아마존 진출 지원을 돕고 있다. 지난 4월, 중소기업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마켓 입점 설명회를 개최 하였으며, 글로벌 셀러 교육을 통해 전문셀러 20명을 양성했다.

■지역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유포문화와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

대구·경북 지역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 관광명소 67곳에 느린우체통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포항시 도시재생사업인 감성우체통 거리 조성을 위해 우체통 20개를 기증했다.

지자체에서 유치한 각종 국제행사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 유포점 제작을 지원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지역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섰다. 내년에는 독도우표점 제작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9년은 각종 지원사업 지속 확대, 특색사업 발굴 등 경제발전 기여

2019년에는 올해 추진했던 지원 사업을 확대·추진하고 우체국소핑의 판매채널을 외부 제휴물과 연계해 오픈마켓, TV 홈쇼핑 진입 등 신규 판로 개척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상품 육성·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청년 셀러 양성'으로 수출 전담 직원이 없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이베이, 아마존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홍진배 청장은 "지역 내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체국이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수 기자

DGB금융그룹, 임원인사·조직개편

김태오 회장 "새로운 도약 위한 조직체계로 종합금융그룹 완성" 자회사 대표이사 3명 신규 선임 5명 신규 임원 선임 등 조직개편



김국, 이한, 김영운



도만섭, 김현동, 송재구

DGB금융지주는 지난 26일 열린 그룹임원 인사위원회, 자회사 최고 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회사 대표이사 3명을 신규 선임, 5명의 신규 임원 선임과 DGB금융지주 및 DGB대구은행의 조직개편을 실시 하였다.

이번 임원인사는 새롭게 시행된 DGB-HIPO(High potential)프로그램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 5명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신규 선임하였으며 기존 임원 중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임원은 유임하였다.

또한 은행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박명흠 부행장은 임기만료로 퇴임을 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은행장 직무대행으로는 김윤국 부행장보(은행 경영기획본부장)가 맡게 되었다.

이번 주요 인사내용으로는 황병욱 부행장보(지주 디지털금융본부장 겸 은행 디지털금융본부장)는 그룹의 디지털부문 강화를 위해 은행과 지주의 디지털본부를 겸직하며 유임됐다.

또 이용한(지주 시너지추진본부장 겸 지속가능경영본부장), 김영운(은행 여신본부장), 도만섭(지주 리스크관리본부장 겸 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 김현동(은행 대구 제2본부장), 송재구(은행 영업지원본부장) 총 5명을 신규 선임하였다.

조직개편에 있어서 DGB금융지주는 내부감

사책임자 직을 임원급으로 신설, 일상적 감사 업무에 전담할 수 없는 감사위원회를 보좌하여 그룹의 감사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토록 하였고, 내부감사책임자의 선임방법(감사위원회 의결), 임기(2년 이상) 등 직무 독립성을 보장했다.

또 감사부 내에 정도경영팀을 신설하여 정도경영 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

또한 지주 디지털금융본부장이 은행의 디지털금융본부를 겸직을 통해 체계적인 미래 금융 대응과 그룹의 디지털 역량결집에 초점을 맞추었다.

DGB대구은행은 '디지털금융 및 고객기반 마케팅 강화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금융 부문은 현행 스마트금융부·디지털금융센터 2부서에서 디지털전략부(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플랫폼 사업 등)·디지털금융부(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채널 운영 및 마케팅)·디지털영업부(콜센터, 론센터, 비대면 실명인증센터 등 대고객 비대면 영업)로 개편해 디지털금융 세부 전략수립 및 체계적 실행에 초점을 맞추었다.

서울 자금시장본부는 급변하는 자금시장 상황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기존 통화별(원화·외화)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기능별(조달·운영)으로 재편했다. 시장상황에 따른 통화의 탄력적 포지션 조정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해외부분 신수익원 투자확대를 위한 조직이다.

마케팅부에는 고객관련 마케팅 기획 기능 및 CRM운영 기능을 통합해 체계적인 고객관점 마케팅 기획 및 실행이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이밖에도 대구지역 지역본부 1개 본부에서 2개 본부로 증설하고, 각 본부별 기업영업추진센터와 리테일 추진센터를 신설, 영업적 특성별로 체계적 영업을 추진한다.

각 지역본부장을 '지역대표'로 직함을 변경, 관할 지역의 영업점과 고객관리에 책임감을 다하도록 했다.

김태오 회장은 "조직의 안정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했다"고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의 배경을 밝히면서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강화와 계열사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 수도권 및 글로벌시장으로의 진출 및 사업다각화 등을 통해 종합금융그룹의 기틀을 견고히 하는 한 해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경수 기자

DGB금융지주이사회,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 개시 결정

자추위, 도덕성, 윤리성 바탕 최고경영자승계절차 개시 결정 대구은행 은행장 선임절차 착수

DGB금융지주이사회는 지난 26일 열린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 (이하 '자추위')에서 DGB대구은행 은행장 선임을 위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 결정을 확정하고, 은행장의 기본 자격요건 결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경주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설비 지원

에너지빈곤층 복지향상에 기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7일 경주 노인전문 요양시설인 사랑원에서 '경주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지원 사업'의 첫 번째 준공식을 열었다.

경주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지원 사업은 경주 지역 내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이 24시간 거주하는 생활복지시설 중 연료비 부담이 큰 곳을 찾아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주는 것이다. 이는 한수원이 에너지빈곤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수원은 이를 위해 지난 10월 한국에너지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부금 1억5천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태양광발전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현재 푸른마을 등 장애인 시설 4곳과 노인시설 2곳

롯데백 대구점, '유기 식기' 선배

롯데백화점대구점 8층 '수라상' 매장에서는 새해 떡국 상차림에 어울리는 '유기 식기'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 나라 전통 식기인 '유기 식기'는 노란 빛이 음식과 어우러져 식욕을 돋우고, 보온과 보병 기능이 있어 따뜻한 음식은 오랫동안 따뜻하게, 찬 음식은 차갑게 유지 할 수 있다.

또한 살균기능이 뛰어나 식중독 예방은 물론 음식이 잘 상하지 않는 특징으로 최근 웰빙 유행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수라상' 매장에서 선보이는 '떡국 상차림'

은행장 후보대상은 최근 3년내 퇴임(DGB 금융그룹 은행 출신) 임원 또는 지주 및 은행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임원을 대상으로 했다. DGB대구은행장 자격요건은 기존 금융권 임원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으며 P&L 및 경영관리 임원경험, 비은행 계열사 임원경험을 기본적인 자격요건으로 설정했다.

자추위에서 은행장 자격요건 설정과 함께 DGB대구은행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40일 이내 은행장 선임이 이뤄져야 한다. 이로써 지난 9개월여 공석이

있던 DGB대구은행 은행장 선임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DGB금융지주 이사회는 "고객 및 지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은행장 지면에 따른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면서 "자추위를 통해 은행장 선임을 통한 본격 절차가 시작되며, 도덕성과 윤리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능력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DGB대구은행의 새로운 은행장 선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DGB 종합금융그룹의 위상을 재정비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경수 기자

대구은행, 최신 바이오ATM 확대 기념 대고객 사은행사

DGB대구은행은 최근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 및 고객 편의성 제공을 위해 통장·카드 없이도 바이오 인증을 통해 금융거래가 가능한 최신 바이오ATM을 대구지역 전 지점에 배치를 완료하고, 영업점 직원의 도움 없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DGB셀프창구(키오스크)'를 8개 영업점에 추가 확대 배치했다.

이bane 138개 대구지역 전 지점에 확대 배치를 완료했으며 내년도에는 경북지역을 포함한 대구은행 전 영업점에도 확산할 계획에 있다. DGB셀프창구(키오스크)는 젊은 고객층이 많은 대학교, 유동인구가 많은 인구 밀집 지역, 대구 인근 신도시 등을 포함한 대구 7개 영업점(경북대지점, 계명대지점, 영대병원지점, 학성로지점, 다사지점, 대곡역지점, 테크노폴리스지점)에 확대 배치하고 DGB금융그룹 서울사육(구 을지로 대우조선해양 빌딩) 1층에 배치하여 수도권 고객에게도 금융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바이오ATM 및 DGB셀프창구 확대를 기념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고객 사은행사인 '2019 Happy New 바이오!' 이벤트를 내년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벤트는 매일 선착순 3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지급,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골드멤버십, 황금돼지 1돈 등 총 20명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로, 참여 희망고객은 대구은행 대구지역 영업점 창구 또는 DGB셀프창구에서 손바닥정맥(바이오정보)를 등록 후 해당 기기에서 바이오인증 거래(입금, 출금, 이체 등)를 완료하면 자동 응모가되며 자세한 내용은 DGB대구은행 누리집(http://www.dgb.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경수 기자



등 경주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6곳에 총 51kW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중이며, 시설 당 월 9만6000원(연간 115만원)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태양광발전설비에 지진과 화재를 감지하는 센서가 탑재돼 보다 안전하게 설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용찬 기자



제품은 떡국기와 수저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격은 31일까지 '떡국기' 4만5000원, '수저세트(2인)'는 2만9000원에 판매한다. 최경수 기자

이광석 씨 인생샷 '대릉원의 벚꽃' 대상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주최
인생샷 공모 18점 선정



인생샷 공모전 대상 이광석씨의 '대릉원의 벚꽃'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강수)이 주최한 '경주여행(사적지) 인생샷 공모전' 수상작이 발표됐다.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개최한 이번 공모전은 모두 164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1차 심사를 거쳐 예선을 통과한 128점을 대상으로 주제의 표현성, 독창성, 작품성, 활용성을 배점기준으로 외부 사진작가의 전문 심사, 공단 임직원 투표를 통한 가산점 등을 반영해, 대상 이광석씨의 '대릉원의 벚꽃' 1점을

비롯해,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8점, 특별상 3점으로 총 18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첫 공모전임에도 불구하고 출품작들이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적지를 표현한 작품들도 있었으며 여행의 감동과 즐거움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정성을 쏟은 작품들이 눈에 많이 띄었지만, 특정 지역, 장소에서 촬영된 작품이 다소 많아 상대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했다.

경주여행(사적지) 인생샷 공모전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수상자들에게 경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함산자연휴양림과 오류캠핑장의 숙박권을 지급하고, 입상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적지의 1일 무료 이용권이 수여된다.

또한, 2019년 봄에 동궁과 월지, 대릉원 등 사적지 일원에서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2018년에는 경제적 악재 속에서도 동궁과 월지에 140만명, 대릉원 120만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해 경주 관광에 효과 노릇을 톡톡히 했으며 경주여행 인생샷, 행운의 고객 이벤트 등 새로운 관광 옵션을 개발해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 경주 관광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다짐을 아울러 밝혔다. 윤영찬 기자

"올해의 해맞이는 영덕으로 오세요"

2019 희망의 울림
경북대중 타종식

기해년 새해의 희망을 기원하는 경북대중 타종식이 영덕군 삼사해상공원에서 열린다.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31일 오후 4시 다양한 부대행사를 시작으로 오후 5시 30분에는 월월이청정, 지역민 축하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저녁 8시 30분부터 송년음악회가 열리는데 코요테, 한혜진, 홍원빈, 김혜연, 진시몬, 진성, 신이가 출연한다. 김성용 기자

2019년을 30여년 앞 둔 시점에 안동취타대를 선두로 경북도지사, 영덕군수를 비롯한 타종행렬이 출발하고 자정에 경북대중의 희망의 소리가 전국으로 울려 퍼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이철우 지사 취임 후 새로운 행복경북을 알리는 첫 번째 해맞이 행사이자 태풍피해를 극복한 영덕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행사이기도 하다.

1월 1일 아침에는 힘찬 대북공연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도민의 희망을 담은 소망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낼 예정이다. 경북대중 타종식은 영덕군관광진흥협의회가 주최하고 경북도와 영덕군이 후원한다. 김성용 기자

성주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단 운영

조기발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성주군은 2019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조기발주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합동설계단을 운영한다.

새마을체육과장을 단장으로 읍면시설직(토목)공무원 10명을 3개반으로 편성해 내년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관내 마을진입로 및 안길, 농로, 배수로, 세천정비등 311건(120억 원)에 대한 설계를 작업기간내 모두 완료하고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해 상반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노균 기자

현장조사 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해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고 조기발주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중심 행복성주 건설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설계단 운영으로 3억5천만원의 시설설계용역비를 절감하고 합동작업으로 인한 기술직공무원 상호간의 업무연찬으로 기술능력 함양과 유대강화는 물론 설계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기해 건설행정의 신뢰도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칠곡군, 지적재조사 국토교통부 '최우수기관' 선정

드론 활용 경계결정 등 활용
뛰어난 사업 추진력 높이 평가

칠곡군은 27일 국토교통부 주관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칠곡군은 사업추진과 특수시책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국토교통부장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사업초기부터 드론을 활용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경계결정, 주민설명회 등에 활용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업에 반영하는 등 뛰어난 사업추진력이 높이 평가됐다.

군은 2013년 왜관1지구(174필지/7만8781㎡)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으로 울리지구 등 6개지구 사업을 완료했다. 또 기산면 영리지구(261필지/14만4052㎡)와 석적읍 남울지구(227필지/13만9420㎡)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장재호 민원봉사과장은 "칠곡군 지적업무가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사업성공의 열쇠인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노균 기자



포항시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총력

포항시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선제적 대응
국내외 유망 투자기업 발굴



포항시는 단일산업 위험에서 벗어나 산업다변화를 위해 여러 전략산업을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산업을 포함한 미래전략 5대 핵심 산업으로 선정하고 가속기 기반 신약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그린 백신사업 등 바이오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포항시는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산업 기업 유치를 본격화하기 위해 '포항시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포항시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장승기 생명공학센터장이 선임됐고, 포스텍, 한동대, 나노융합기술원, 가속기연구소, 포항TP 등에서 관련분야 전문가 11명이 국내외 바이오산업 투자유망기업 발굴 관련 자문 및 중개 역할과 바이오산업 투자 기업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 등을 주로 담당한다.

이날 출범식 참석자들은 포항이 바이오산업의 최적지로 방사광가속기 등 기존의 연구개발 인프라와 수준 높은 인력 등 성장 잠재력을 활용해 더 많은 제약회사와 연구기관들

이 신약 개발을 위해 포항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전 세계적으로 삶의 질 향상,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등 세계의약품 시장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바이오, 제약 산업분야에 대해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신약은 1개 개발 시 약 40,000명의 일자리가 창출(고용관련 제약산업 지표)되는 제약산업은 타 산업 대비 R&D 투자비 비중이 매우 높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신약개발에 성공하면 특허를 통해 20년간 고수의 창출이 가능해 제조업은 물론 전 산업 평균 부가가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에서 영업이익 증가율 2위, 매출 증가율 3위를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삼성, SK 등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약, 바이오산업을 그룹의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잇따른 투자를 발표함에 따라, 포항시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포스텍을 비롯한 가속기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 등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R&D 연구인프라를 활용해 신약 개발분야에서 주도적으로 바이오 제약 분야 기업유치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늘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기업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많은 기업들의 투자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동진 기자

울진군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

경북 최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선정 '패거'

울진군이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가 경북도 최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는 패거를 이뤘다.

경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는 도내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개발 공모사업을 실시해 자원봉사분야 교수 및 전문가들이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프로그램의 효율과 효과가 뛰어난 우수 프로그램으로 (사)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의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박람회'가 선정됨으로써 내년도에도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올해 초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를 개발 및 공모해 '2018 경북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에 선정됐으며 지난 6월 15일과 10월 9일에 개최된 2회의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게 됐다.

전찬걸 군수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다양하고 참신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울진군의 즐거운 자원봉사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성 기자



호미곶 해맞이축전 교통체증·주차난 해소에 만전

동해 임곡방향 빠른
귀갓길 중점 홍보

포항시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열리는 '제21회 호미곶 한민족해맞이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해맞이 관광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17일 교통봉사단체 및 유관기관 교통대책 회의에 이어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교통 및 주차관리를 위한 교통근무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교통봉사 인원은 총 624명으로 공무원 209명, 경찰 200명과 해병대전우회, 포항남부모범운전자회, 새마을교통봉사대 등 교통봉사단체 215명이 해맞이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봉사한다.

포항시는 이번 해맞이 행사에 2만3000여대의 차량이 호미곶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2만2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

16개소를 확보했다.

특히, 새천년기념관 및 대천교~극동수산 해안도로 등에 150대 정도의 버스 전용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해 타지역 관광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부산권 차량들이 호미곶 해맞이광장으로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주요길목 IC에서부터 영일만대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교통안내판을 설치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호미곶을 찾는 관광객들이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맞이를 마치고 귀가하는 차량을 동해면 임곡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구룡포읍 시내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1월 1일 06시부터는 구룡포 시가지 참마트 ~ 구룡포초등학교 ~ 구룡포성당 삼거리를 일방통행으로 시행해 귀갓길 교통체증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동진 기자

울릉 스마트시티 관제센터
유관기관과 MOU 체결

울릉군은 지난 24일 울릉 스마트시티 관제센터 개소에 앞서 울릉경찰서, 울릉교육지원청, 포항남부소방서, 동해해양경찰서와 울릉 스마트시티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병수 울릉군수, 반성의 교육청, 변인수 울릉경찰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울릉 스마트시티 관제센터는 각 기관에서 자체 운영 중이던 CCTV를 통합관리하며 24시간 빈틈없는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다.

이는 군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안전한 울릉군 구현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기관별 유기적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군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윤환 기자

구미시, 34개 공모사업 511억 확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34개 사업 선정 전년 대비 7배 이상 대폭 증가

구미시는 2018년 한 해 동안 중앙부처·경북도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한 결과, 총 34개 사업 511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4억원 대비 7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숲 조성,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등 대형 국가프로젝트 사업에 적극 대응해 선정된 결과로 풀이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지역발전 전을 위해서는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행정력 집중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공모사업 유치전략 매뉴얼 제작, 부서간 공조체계 구축, 부서별 공모사업 관리 담당자 지정, 국·도비 확보 직원 인센티브 제공 등 공모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주요 선정 공모사업은 산업, 일자리, 정주여건,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특히 정주여건, 환경 개선 분야에서 대규모

사업들이 선정돼 지역발전엔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통한 정주여건 개선

2018년 8월 원평동 시가지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으로 175억원을 확보해 민선 7기 핵심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정책의 동력을 마련했고, 구미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선정으로 20억원을 확보해 IT기술 기반으로 한 첨단교통운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통관리를 통해 교통혼잡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바람숲길 조성사업 선정으로 도시 환경 개선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바람숲길 조성사업 공모에 응모해 130억원을 확보했다. 2021년 숲길조성 완료로 목표로 도시 외곽 산림의 생태적 관리로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고, 도심 내로는 바람생성 숲, 연결 숲, 확산 숲, 돌레길, 삼지쉴 정원 등 다양한 테마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연구인력 양성 사업 선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2018년 7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일환인 구미형 청년연구인력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4억원을 확보해 50여명의 연구인력을 양성했다. 또한 2019년엔 규모를 확대 100여명의 청년연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산학협력 사업 선정으로 산업분야에서도 뚜렷한 성과 거둬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민·군 ICT 분야, 탄소분야) 선정으로 총 104억원을 확보했다. 민·군 ICT 분야에서는 금오공대와 LIG 시스템(주)의 업무협약을 통해 스마트 IoT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선도할 연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사업 선정으로 42억원을 확보했으며 기술·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고경력 퇴직 인력과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청년을 매칭시켜 창업팀을 구성한 후 시제품 개발비, 마케팅 등의 사업비와 창업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2019년에는 공모사업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모사업 총괄부서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업무보고 등을 분석해 부처 정책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외부 전문가 초청 워크숍, 부서별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 등 공모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은진 기자

김천시, '2018 재난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

개인역량, 기관역량 등 전 부문 높은 평가 받아



행사 추진, 해해위약지역 점검 실적, 재난관리 기금 확보실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라는 걸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김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은진 기자

영천시, 흑한기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유동인구 많은 7개소 설치

영천시는 흑한기를 대비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버스승강장 7개소에 바람막이를 설치했다.

설치 지역은 농촌 어르신들의 장보기나 병원 이용이 집중되는 완산동 영천공설시장 인근이며, 겨울철 추위로 인한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기존 승강장에 밀폐식 비닐막을 설치했다.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도 크게 반기고 있어 추후 아파트 주변이나 인구 밀집지역의 승강장에 대해서도 10여 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흑한기에 대비해 승강장 내에 온열의자 설치 또한 계획돼 있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 향상에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승강장 개선을 비롯한 영천, 대구, 경산 간 대중교통 광역 무료 환승과 행복택시 도입,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등 시민들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은하 기자

경산시, 道 최초 노인복지통계 개발

복지 등 노인관련 지역정책 수립·활용 기초자료로 제공 경산시 노인의 다양한 분야별 현황 파악, 비교·대조 분석 자료

경산시는 작년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개발·생산한 '경산시 여성통계'를 이어 올해는 경상북도 지자체 최초로 '경산시 노인복지통계'를 개발했다.

이번 노인복지통계는 경제활동, 복지, 홀몸노인 등 8개 분야 9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타기관의 행정자료를 수집해 작성된 저비용·고효율의 통계는 물론이고, 경산시 노인현황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한 맞춤형 통계로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단히 살펴보면, 2017년 기준 경산시 노인인구는 3만8370명으로 전체 인구(25만9485명) 대비 14.8%이며 2013년 3만1728명부터 5년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 경산시 주택 소유 노인 수는 1만3894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대비 36.2%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주택' 소유자가 8616명(62.0%)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소유자는 7059명(50.8%)으로 주택 소유 노인 수의 절반을 넘었다. 토지 소유 노인 수는 1만6618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대비 43.3%이다.

건강/여가분야에서는 만성질환(8종) 중 연간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은 질환은 1만5340명(46.8%)의 '치주질환'이며 진료비는 129억

7200만원(28.5%)의 '정신질환'으로 나타났다.

주요 암(6종)에서는 '위암'(449명, 32.2%)이 연간 진료인원이 가장 많고, '폐암'이 진료비(21억4300만원, 32.7%)가 가장 많이 들었다.

그 밖에 복지 분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홀몸노인 등에 대한 분석 자료도 제공된다.

경산시 노인복지통계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경산시의 노인 관련 정책 수립 및 고령화 대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최영조 시장은 "작년에 개발된 지역 맞춤형 통계인 '여성통계'를 이어 '경산시 노인복지통계' 또한 향후 노인세대를 위한 현실성 있는 노후 대책 근거 마련은 물론 효과적인 노인관련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다방면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범 기자



구미시, 열린어린이집 지정서·현판 수여

진평어린이집 등 15개소 선정 구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이웃돕기 500만원 성금기탁

구미시는 지난 26일 '2018년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15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지정서

와 현판을 수여했다.

열린어린이집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위해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인 참여가 이뤄지는 형태로 운영된다.

구미시는 2018년 열린어린이집 지자체형으로 15개소를 지정했다. 지자체형 열린 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지자체형보다 상향된 운영기준과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적용해 선정되며 구미시는 진평어린이집이 우수형으로 지정됐다.

또한 이날 구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선중)에서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지난 4일 구미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진억)에서도 이웃돕기 성금 1245만7030원을 기탁한 바 있어 이웃사랑 실천에도 앞장섰다. 이은진 기자

청도중앙초교, 어르신과 함께하는 감동한마당

청도 효사랑실버센터 방문

청도 중앙초교는 지난 21일 감뽕봉사단 학생들이 청도 효사랑실버센터를 방문, 어르신께 연말연시를 맞아 감동과 희망의 공연을 선물했다.

감뽕봉사단은 어르신들과 함께 나눌 간식을 준비하는 등 기본 마음으로 효사랑 실버센터를 찾았다. 담당선생님은 센터 소개 및 안내를 해 주는 한편 효의 기본 마음가짐과 태도를 강조했다.

연말연시 모두 들떠있는 가운데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들께 합창, 댄스, 사물놀이공연으로 이어진 공연을 보여드리자, 함박웃음과 박수로 학생들을 격려해 주었다. 공연하는 내내 학생들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듯 정성을 다해 감동을 선사했다.

진현식 교장은 "이번 행사는 가슴 뭉클한 온기의 위대함을 느낀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학생 및 어르신께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운행 기자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상주고서 자원봉사박람회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6일 상주 고등학교를 찾아가 '상주고등학교와 함께하는 자원봉사박람회'를 진행했다.

상주고등학교 1, 2학년 재학생 300여명과 함께 한 이번 박람회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진중한 의미를 탐색하고, 자원봉사 활동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자원봉사 제도화 찬·반토론'을 통해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사회적 이슈를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됐다. 이태호 기자

문경시 유치원, 어린이집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유치원, 어린이집 10m 이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31일부터 문경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문경시 지역내 63개소(유치원 24개소, 어린이집 39개소)가 해당되며, 흡연 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개정된 내용을 담은 아크릴 현판과 홍보 스티커를 제작·배부했으며 금연 지도원을 통해 금연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및 안내 표지 설치·제도 등을 고려해 3개월간(31-3월 30일)의 계도기간을 가진다. 계도기간 이후 금연구역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은진 기자



이번 조치는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문경시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들을 간접 흡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안동 브랜드 가치, 10년 새 20배 증가

2008년 2261억 2018년 4조4086억 지역문화 세계적 가치로 상승 주도



안동시는 2018년도 안동 브랜드 가치를 화폐단위로 산출할 경우 4조 408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008년도 안동 브랜드 가치는 2261억원이

었다. 10년 전 4천억 대 예산이 금년에 1조원을 상회하는 것을 감안하면, 안동 브랜드 가치가 20배에 육박하는 성장 수치를 보인 것은 괄목할 만하다. 이는 하드웨어 구축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내실을 다진 결과로 보인다. 안동시는 지난 10년간 하회마을의 세계유산 등재(2010년), 유교학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2015년), 한국의 산지 승원 봉정사의 세계유산 등재(2018년) 등을 통해 지역문화를 세계적 가치로 확산시키며 가치상승을 주도해왔다. 또, 경북도청 이전(2016년)과 중앙선복선전철(2020년) 개통 계획이 가치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독립운동의 산실이자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부각된 임청각과 지역 축제에서 글로벌 축제로 성장한 안동

국제탈춤축제의 인지도가 가치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안동시 브랜드 자산가치 산출은 재무·회계적 측면과 마케팅적 측면의 통합적 접근으로 정립한 지역 브랜드 가치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또한, 전국 174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인식 속에 이미지로 자리 잡은 브랜드 인식 자산과 브랜드 경쟁력 보유 자산 평가를 통해 도출된 브랜드 파워를 적용, 결과를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서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 이러한 지표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며 더 큰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면서 "브랜드 가치 상승이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구 기자

딱딱한 종무식 대신 사회봉사 활동으로...

예천군, 연탄 봉사 활동 등 호평

예천군이 틀에 박히고 뻘한 종무식 대신 사회봉사 활동을 한다. 매년 종무식은 문화회관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관행적으로 공무원들만의 행사에 그쳤다. 올해는 읍·면 별 공직자들이 17개 팀으로 나눠 사회복지시설과 불우이웃연탄 봉사 활동, 사회복지시설 환경정비 등 주민과 한해를 마무리 한다는 것이다. 지보면 직원들은 연탄 400장을 관내 불우

이웃에게 전달하는 등 각 읍·면별로 봉사 활동을 실시 한다. 이와 함께 내년1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행정, 기획팀장등 주요 6급 보직 인사 공모제를 실시하면서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받아 들여 다면 평가제를 도입 했다. 민선7기 김학동 군수가 그동안 형식적이고 고정관념으로 기존의 구태를 답습하는 행정에, 탈권위주의적이고 조직의 역동적인 새 변화의 바람을 곳곳에서 감지 할 수 있다. 이주현 기자



의성군 '계약원가심사 운영평가' 최우수

18억원 예산절감 건전재정 운용 도모

의성군은 2018년 경북도 계약원가심사 운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다고 밝혔다. 계약원가심사는 군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군은 올해 237건 398억원을 심사, 18억원의 예산절감 및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재정 건전성 제고와 예산의 효율성 도모 등 원가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4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한 기술지원계를 신설한 이후 2015년(19억원)과 2016년(15억원)에도 예산절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박재성 기자

예천군 '경북도 투자유치대상 종합평가' 3관왕

4년 연속 수상

예천군은 27일 오후 2시 경북도청 다목적 홀 대공연장에서 열린 '2018년 경북도 투자유치대상 종합평가'에서 3관왕을 달성했다. 군은 이번평가에서 시·군 기관부문 최우수상, 공무원부문 투자유치담당 여운희 우수상, 투자기업부문 톨립인태너셔널㈜ 정영호 대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도내 23개 시·군을 투자유치실적, 기업애로사항 해결, 기업유치 활동 등 투자유치업무 전반에 대해 엄격한 심사와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시상하는 상이다. 군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3건에 682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거뒀다. 특히, 예천 제2농공단지에 수도권 이전 기업인 톨립인태너셔널㈜의 애로 사항을 파악

하고 이를 해결하여 500여원의 대규모 추가 투자유치와 26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도내 23개 시·군 중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4년 연속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청송군, 경북도 지적행정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

군민 신뢰도 구축 높은 평점 받아



청송군이 최근 경북도에서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경북도 지적행정업무 추진실적 종합평가' 결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청송군은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청송'이라는 목표아래 지적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받아 처리하는 '지적민원실 운영'과 지적측량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기준점 일원화사업' 등 각종 지적 행정 업무추진에서 신뢰도 구축에 높은 평점을 받았다.

특히, 도로명주소 활성화 및 정적을 위해 군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와 실생활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의 특수 시책을 적극 추진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데 좋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농촌지역 및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주민밀착형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청송군만의 특화된 지적 행정 서비스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구 기자

의성군, 공동 공항유치위원회와 간담회 가져

통합신공항 건설 체계적 대응 필요

의성군은 통합신공항 의성군 유치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한탁, 김인기, 신시호, 조양식, 박정대)와 소보면 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류병찬) 각 위원장 및 위원들과 함께 지난 2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성공적인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한 공항추진기획단장의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다양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신공항 건설에 따른 발전저해요인을 최소화해 군위와 의성이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새로운 발전지역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체

계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항공관련 산업의 유치,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굴과 함께 대구시에서 제시한 지원사업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와 향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주민투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김인기·류병찬 위원장은 "의성과 군위 전 지역 주민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두 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경산시 청년정책참여단 2018년 활동보고회 개최

경산시는 지난 26일 예술마을커피가게(사정동)에서 경산시 청년정책참여단(이하 참여단)의 2018년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2018년 활동보고, 유공자 표창, 청년정책 특강, 5개년 청년정책기본계획 검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청년정책 의제 발굴 및 참여단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청년 NGO 활동가 여중찬 씨와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김기현 씨가 시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올해 초 경북도내 최초로 구성된 참여단은 대학생, 직장인, 주부, 청년NGO활동가 등 지역 청년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 한해 청년정책 발굴 워크숍 개최,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탐방, 분과별 소모임, 청년정책 연구용역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산시 청년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이날 표창장을 받은 여중찬 씨는 참여단 활동을 통해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 당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었고, 다양한 정책들을 시에 제안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참여단은 앞으로도 각종 청년정책 수립 시 심의 및 자문 새로운 청년정책 의제 발굴 및 제안 원활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파트너 및 서포터즈 역할 등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박준범 기자

군위군, 재정분석 종합평가 최우수 단체 선정

행안부,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 대상

군위군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분석은 전국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책임성 3개 분야 22개 지표를 평가했으며, 군위군은 전국 군 단위로서는 유일하게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단체로 선정돼 기관표창 및 개인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군의 이 같은 결과는 경성경비 절감, 지방채 조기상환,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재정분석 종합평가'는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한편, 김영만 군수는 "앞으로도 군위군의 살림살이를 더욱 건전하게 운영하고, 절감부분은 주민편의 사업에 투자하는 등 열악한 재정 효율적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750만 관광객 유치! 안동시 전력투구 빛을 발했다

시정추진 우수부서·공무원 선정

안동시는 2018년 한 해 동안 시정추진에 탁월한 성과를 거뒀던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을 선정했다. 우수부서는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정 주요 시책평가, 다면평가를 실시해 성과와 실적, 시민 서비스 제공 노력 정도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최우수 부서는 관광진흥과에 돌아갔다. 이 부서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분홍분홍 안동 이벤트 추진 등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및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 적극적인 홍보마케팅과 성공적인 축제 개최로 전년 대비 34% 증가한 750만 관광객을 유치했다. 또 올 11월부터는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A-Smile 친절 캠페인' 시행으로 '1000만 관광객 도시 안동'의 이정표를 마련했다. 김용구 기자

그리고 우수부서는 일자리경제과·안전재난과, 장려부서는 전통문화예술과·축산진흥과·하회마을관리사무소를 각각 선정했다. 최우수 공무원은 '안동시 관광협의회' 설립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관광발전 방안 모색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광정책 포럼' 개최 등 더욱 발전된 안동 관광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관광진흥과 서철호 관광정책팀장이, 우수공무원은 투자유치과 김종일 실무주사·안전재난과 권혁찬 주무관이 선정돼 시장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안동시는 매년 연말 시책추진 종합평가를 통해 한 해를 빛낸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과 함께 선의의 경쟁을 유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정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김용구 기자

영주시, 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사업 시행

향토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영주시는 비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 및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2019년 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영주시 자체예산을 확보해 매년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2019년 예산은 2억원이며, 12월 26일에서 2019년 1월 8일까지 시정 누리집 공고를 거쳐 2019년 1월 7일~8일까지 2일간 보수사업 희망자의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기준은 건조물 보수의 경우 총사업비의 70% 이내로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건조물 건립의 경우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대상 선정은 자문위원의 현지조사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을 선정한다. 비지정문화재의 기준은 1910년 이전에 인위적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영주시 장수면 성곡리 안동권씨 검교공파 이맹공 사당 보수공사 장면.

에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영주시는 부석사, 소수서원, 무성마을 등 135개의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보존과 관리가 시급한 비지정문화재도 많이 있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사업 신청과 관련되는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 문화재관리팀(639-65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기 기자

원추의 오늘 운세 (음력 11월 22일 갑오)

- 4, 6, 8월생 금전 운동하러 고민하지 말고 평소 돈을 아껴 쓰자. 애정은 진실함을 바탕으로 삼으면 마른 장작에도 불을 지필 수 있겠다. 사업가는 연말연시인 탓에 궁핍한 지갑에서 나갈 돈이 많겠다.
- 사, 피, 증 성씨 사업가는 황금 들판을 만들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기회는 잡고, 과욕은 버리라. 2, 5, 7월생 가족의 근심·걱정을 혼자 모두 지는 격. 내게 투자하는 것은 미래를 보는 것이다. 현재를 즐기거나 훗날의 보람을 선택하라.
- 3, 10, 12월생은 내 색깔을 찾아야 할 때다. 남 좋은 일을 해주다가 내 호주머니 돈 나가는 줄 몰라 가족 불만을 커져만 가는구나. ㄴ, ㄷ, ㅈ, ㅎ 성씨 화공업, 교육업 종사자는 건강 관리가 절실하다. 노란색은 흉.
- ㄷ, ㅅ, ㅈ 성씨 금융업, 자동차업에 종사하는 나뭇가지에 바람 잘 날 없다. 긴장을 늦추지 말라. 1, 11, 12월생은 사랑하는 이가 배신해 불신과 고독이 닥쳐온다. 여유와 넉넉함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 동쪽이 길.
- 2, 9, 12월생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편안한 상대를 만날 수.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좋겠다. 울고 싶을 때 참을 수 있는 강한 자가 돼라. 나약함은 가족의 근심을 더한다.
- ㅈ, ㅊ, ㅌ 성씨는 개성을 추구하라. 한 입에 삼켜 버리려고 으르렁대는 이가 있다. 용, 양, 소피 도움이 필요하다. 6, 8, 9월생은 불꽃이 만발할 운이니 화재를 예방하자. 남모르는 비밀이 노출된다.
- 1, 3, 5월생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한다. 직장인은 상사에게 인정을 받고, 주위에서도 칭찬에 인색하지 않겠다. ㄴ, ㅅ, ㅎ 성씨는 불경기여서 사업에도 불뚱이 튀겠다. 꽃을 보려면 봄을 기다리는 지혜도 가져야 한다.
- 3, 6, 8월생 오후에 만날 사람 중 ㄴ, ㅈ, ㅎ 성씨가 훌륭한 거래 상대다. 돈 가치를 명심하되 인색해 하지는 말라. ㄱ, ㅅ, ㅈ 성씨는 짜증만 가득한 날이나 일찍 귀가해 휴식하면서 하루를 반성하라. 소화 장애 조심.
- ㄹ, ㅈ, ㅎ 성씨는 사업해도 괜찮은 시기지만 도전 의식은 부족하고 변화를 싫어해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격이다. 변화를 추구하고 자신감과 모험심을 보강하라. 7, 9, 11월생 내용은 그만 풀고 과감히 다 가져서. 북쪽에서 반가운 소식이 온다.
- 1, 5, 12월생은 비늘방석에 앉은 격이다. 내가 선 자리가 내 것이 아니어서 불안감이 가득하다. 정직한 자세로 매사 정진하라. ㄱ, ㅅ, ㅈ 성씨는 중종 구매를 삼가라. 후회할 일은 예방하는 것이 상책이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할 때다.
-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이나 인생의 전부 아니다. 2, 3, 7월생은 내 미래를 위해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ㄱ, ㄴ, ㅈ 성씨는 사업 성공을 위해 부하 직원을 잘 다스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인 다루 두하지 말라.
- 4, 5, 8월생은 투자에 눈멀면 가정을 잃을 수 있음을 알라. 가진 행복을 지켜나가는 것도 부자가 되는 길이다. ㄴ, ㅈ, ㅎ 성씨는 기다려야 애정을 쟁취할 수 있다. 사랑은 받는 것 없이 주는 것이다.

대구 곳곳서 해맞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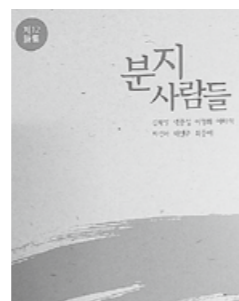
'황금돼지해' 다양한 행사 마련

2019년 기해년(己亥年) 첫날인 1월 1일 대구 곳곳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동구는 오전 7시 효목동 동촌유원지 해맞이동산에서 주민을 맞는다고 27일 밝혔다. 가족, 친구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황금 돼지 포토존'을 설치한다. 떡국, 커피 등의 음식도 나눈다. 가루뱅이 농악보존회의 풍물놀이, 광동현과 슈퍼밴드의 퓨전 국악 공연 등도 한다. 달서구는 오전 7시 와룡산 제1헬기장에서 해맞이 행사를 연다. 기원제와 난타 공연, 풍물단 축하공연, 가훈 써주기 행사 등이 주민을 기다리고 있다. 성서국민체육센터 운동장에서는 5000인분의 떡국 나눔 행사도 열린다.

남구는 오전 6시 40분 상동교 아래 신천둔지에서 새해를 맞는다. 지신밧기, 대북 퍼포먼스, 경기민요·성악 공연 등의 볼거리가 준비돼 있다. 일출 후에는 현향의식, 고시래와 함께 평화로운 새해를 기원한다. 북구는 오전 7시 조야동 합지산 망일봉 정상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구암동 운암지 수변공원에서의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망일봉 전망대에서 국악 공연, 합성과 만세삼창, 희망 풍선 날리기 등의 행사가 이어진다. 북구새마을회 회원들이 떡국 3000인분을 준비한다. 서구는 오전 7시 와룡산 상리봉 조망점에서 해맞이 행사를 연다. 와룡국악단의 지신밧기와 성악중창단의 노래로 새해를 맞이한다. 뉴스스

'분지사람들' 회지 제12집 발간

매년 연간회지 1권씩 발간



시문화회 '분지사람들'(회장 최홍이)이 작품집 '분지사람들' 제12집을 발간했다. 지난 2004년 출범한 분지사람들은 대구의 중견시인들이

참여해서 매년 연간회지 1권씩 발간해 왔다. 이번 출간된 제12집에는 김재열의 '갯밭골 오두막' 백종성의 '도솔천' 여영희의 '대나무 그림자' 이태석의 '연못의 산길에는' 차경아의 '풍선똥굴' 채진규의 '일상탈출' 최중이의 '제자리 그리고 빈자리' 등 회원 7명의 시작품 60여편이 담겨있다. 분지사람들의 지난 26일 대구시내 식당에서 회지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최경수 기자

경주엑스포공원, 솔거미술관·경주타워 '최고 인기'

올해 32만9천명 방문 관람객 설문, 입장료 친절도 대체로 만족



경주엑스포공원 내 경주타워와 계림지

올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을 찾은 관람객에게 '솔거미술관'과 '경주타워'가 가장 사랑받은 공간으로 조사됐다. (재)문화엑스포는 27일 상시개장 기간에

엑스포공원을 방문한 관람객 2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36%가 '솔거미술관'을 가장 인상 깊었던 곳으로 꼽았고, 22%가 '경주타워'라고 답했다. 구름위에 카페(7%), 플라임 공연(7%), 주라기로드(6%), 새마을관광열차(4%), 침성대 영상관(4%)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올해 3월 26일-11월 30일까지 '2018 시즌오픈' 기간에 32만9103명이 엑스포공원을 다녀갔고, 지난해 26만2825명보다 22%(6만6278명) 이상 증가했다. 관람객들은 엑스포공원의 청결상태는 물론 친절도, 입장료, 프로그램 등 전반에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특히 응답자의 70%가 '엑스포를 다시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재방문 이유에 대해 다양하고 훌륭한 콘텐츠, 아름다운 공원 풍경 등을 꼽았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관람객은 40대(27%), 30대(23%), 20대(21%)로 고루 분포됐고, 가족(50%)과 친구·연인(36%) 관람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두환 문화엑스포 사무처장은 "만족도가 대체로 높게 나왔지만 관람객들이 원하는 편의시설 확충과 콘텐츠 개발 등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스

대구시내빙상장 겨울방학 특강

대구시설공단이 내년 1월 2일-22일까지 2019년 겨울방학 맞이 어린이들을 위한 방학특별강습반을 운영한다. 스피드, 피겨 2개 과목이며 오전 10시, 11시(50분 수업)에 시간대 별 6-7개반씩 운영한다.



'제야음악회' 공연보며 새해맞이

3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희망을 연주하는 음악회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오는 31일 오후 7시 30분 예술극장1에서 '2018 제야음악회'를 선보인다. 이번 음악회는 대구 오페라하우스 상주단체인 디오 오케스트라와 광주시립합창단, 순천시립합창단이 합동무대를 펼친다. 연주회는 김환 SBS 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1년간의 하이라이트가 선보인다. 또 베토벤 '합창' 교향곡을 비롯해 홀스트의 관현악 모음곡 '행성-제4곡 목성', 체코의 아름다운 도시 프라하를 연상케 하는 스테타

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2악장 '몰다우'가 연주된다. 작곡가 조지 거슈윈 탄생 120주년과 벨스만델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오페라 '포기와 베스'의 주요곡들도 선보인다. '썸머타임(Summer time)'을 비롯해 '베스, 이제 당신은 내 여자야'를 조경화 소프라노와 전승현 바리톤의 노래로 만날 수 있다. 판소리 에니메이션 음악극 '드라곤 킹'의 주요 노래도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돼 소리꾼들의 노래와 함께 다시 연주된다. 이번 공연의 후반부는 광주시립합창단, 순천시립합창단 등 출연진이 협연해 기해년 새해를 축하하는 '환희의 송가'로 장식된다. 올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펼쳐졌던 주요공연과 내년 공연을 미리 선보이는 영상도 상영된다. 뉴스스

'배우는 즐거움, 나를 찾는 기쁨'

구미시립중앙도서관 문화강좌 작품전시회

구미시립중앙도서관이 지난 26일-내년 1월 6일까지 '배우는 즐거움, 나를 찾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문화강좌 수강생들의 작품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갖고

두은 솜씨를 발휘하는 자리로 서예, 땃생&수채화, 캘리그라피 등 15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남동수 구미시립중앙도서관장은 "그동안 틈틈히 갖고 두은 재능을 선보인 문화강좌 수강생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평생교육도시에 걸맞게 많은 시민들의 교양과 취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강한신문 대구광역시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정주필 편집인·편집장 김성용 주간 김재열
 대구시 동대구로 85길 60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학교에서 대구미래 역량교육 제대로 뿌리내리겠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신년인터뷰

창의융합교육·과정중심평 확대 추진
교육철학 담긴 미래역량교육 정착
교육여건 취약 지역 행·재정적 지원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 사교육 대체
교육공동체의 교육정책 참여 활성화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27일 신년 인터뷰를 통해 “취임 이후 5개월이란 짧은 시간에도 대구미래역량교육의 밑그림을 완성했다”면서 “이는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한 교육가족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대구시민 덕분”이라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이어 “미래를 배우고 저마다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예측 불가능한 변화가 무한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처럼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구교육의 방향을 미래역량교육으로 정립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은희 교육감과 일문일답.

-교육가족과 대구시민에게 드리는 인사말은.

“지난 한 해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해 주신 교육가족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대구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취임 후, 대구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교육의 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2019년은 대구

미래역량교육이 첫 걸음을 내딛는다. 대구교육공동체 모두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천해 학생들이 행복한 미래,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대구시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큰 복이 온다는 황금돼지해를 맞아 희망과 행복이 모든 가정, 학교 지역 곳곳에 넘쳐 나기를 바란다”

-취임 이후 5개월 간 성과와 내년 중점 추진 정책은 무엇인가.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의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통해 ‘대구미래역량교육’ 밑그림을 완성한 것이 올해의 가장 큰 성과이자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내년부터 대구미래역량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대구미래역량 교육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무

엇보다 배움의 본질에 충실한 학생중심수업에 중점을 두기 위해 맞춤형 진로학습코칭을 통한 기초기본학력 신장과 1수업 2교사제 확대, 국제인증교육과정(IB) 시범 적용, 교과융합 프로젝트, 협력학습 등의 창의융합교육 및 과정중심평가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환경도 변화된 교육과정을 담아낼 수 있도록 미래교실 리노베이션, 상상제작소, 초등학교 놀이학년·학기제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기존의 정형화된 수업 공간에서 탈피하여 창의적인 수업 공간으로 재구조화하여 미래역량 육성을 위한 환경 마련에 밀착해 나갈 것이다”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담긴 미래역량교육은 무엇인가.

“이미 4차 산업혁명에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교육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교육가족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학교 교육이 변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미래를 배우고 저마다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예측 불가능한 변화가 무한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구교육의 방향을 미래역량교육으로 정립했고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라는 비전과 △미래역량 함양 △다품교육 △학교 자율 △따뜻한 교육공동체의 4가지 전략을 설정했다.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자신의 잠재력을 꽃 피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면밀히 살피면서 저의 교육철학이 담긴 미래역량교육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지역간 학력격차 해소 방안은.

“오랜 기간 고착되어 온 지역 간 교육격차

를 단시간에 줄일 수는 없다. 하지만 대구교육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과제이다. 교육청은 지역 내 교육격차를 줄이고 교육역량 상향평준화를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했고 향후에도 확대 시행하겠다. 우선 교육여건 취약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형공립고, 행복학교를 운영, 두드림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자기경영학교 사업, 기초학력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여건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교육여건 취약 지역 학교에 우수교원을 정책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고등학교 배정에서도 광역배정을 50%로 확대한 결과 수성구 학생들이 비수성구 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역 간 학력 격차 해소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 경감대책은 무엇인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교육의 교육력을 높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청은 협력 중심 수업문화 확립, 맞춤형 진로교육 내실화, 과정중심 평가 방법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행복학교 운영, 교육과정 컨설팅 연수, 진로진단교사를 활용한 진로교육 활성화, 꿈과 진로를 찾아가는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운영, 대입전형 및 진로진학 컨텐트 개발, 정보제공 진로진학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예·체능 및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질을 높여 사교육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

-교육공동체 활성화 대책은.

“학생, 학부모, 교사뿐 만 아니라 대구시민들 모두가 교육공동체이다. 교육이 희망이고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대구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구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학계 및 교육원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대구미래교육정책자문위원회’와 교직원들 중심으로 하는 ‘정책기획단’,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등이 발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 5월, ‘대구미래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공약이행 주민평가단’운영과 연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청 사업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대구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공동체의 교육정책 참여 활성화에 힘을 쏟게 될 것이다”

-끝으로 학부모와 교사, 학생에 대해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다. 이는 교육이 미래를 담보하고 책임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교실의 변화가 교육의 변화를 이끈다고 확신하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력할 것이다.교육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교육공동체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준다면 교육은 반드시 변화할 것으로 본다. 대구교육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대구교육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

뉴스

2019 정시모집, 내일부터 표준공통원서접수

대구한의대, 창업캠프 진행... 스킬 UP!

원서접수 통합회원 가입 후 지원가능
지원불가 대학 유의...미리 작성해야 안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29일부터 표준 공통원서 접수서비스로 2019학년도 정시모집 대학입학원서를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4년제 대학은 내년 1월 3일까지 가나다 3개 모집기간 중 중 선택해 전형을 실시하게 된다. 전문대학 정시모집은 29일~내년 1월 11일까지 접수한다.

공통원서접수를 위해서는 대행사인 유웨이 어플라이 또는 진학어플라이에서 통합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후에는 일반 188개교, 전문 137개교, 기타 5개교 등 모든 대학에 지원 가능하다.

여기에 △경향대학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간호사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전가톨릭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중양승가

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일부는 자체적으로 원서를 접수한다.

지원자는 가입한 통합회원 아이디(ID)를 이용해 원서접수 대행사에 로그인 후 공통원서와 공통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통원서는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 계좌정보, 출신학교 정보 등을 기입하고, 공통자기소개서는 지원할 대학이 요청하는 경우만 작성하면 된다.

한 번 작성한 공통원서 및 공통자기소개서

는 희망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때 재활용되며, 필요하면 수정해 제출 가능하다.

공통원서 및 공통자기소개서는 ‘내보내기’ 또는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 원서접수 대행사간에 주고받을 수 있다.

지원할 대학을 선택한 후, 공통원서 항목을 확인·수정하고 대학 지원사항과 사진 등 대학별 추가입력 사항을 작성하고 저장하면 된다. 입학전형료는 개별 또는 대행사별로 묶어 결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수시모집 기간에 작성했던 회원정보와 공통원서가 있다면 재활용할 수 있다.

사전에 회원가입하지 않은 수험생은 미리 통합회원 가입과 공통원서 작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수험생의 컴퓨터에서 공통원서 접수시스템 접속에 문제가 없는지 앞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합회원 가입과 공통원서를 사전에 작성해 원서접수 마감 시기에 다급하게 작성하다가 실수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

창업동아리 10개팀 20명 대상



대구한의대학교가 창업동아리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창업캠프를 실시했다.

학생들은 스타트업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네트워킹 형성을 위한 비즈니스 팀빌딩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 및 아이디어 인터러빙을 통한 창업아이템 발굴 △디자인씽킹과 VOC를 활용한 창업아이템 고도화 △핵심 Sheet를 활용한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스킬 및 스피치 노하우 교육을 받았다.

안은미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단장은 “이번 창업캠프는 다양한 미션을 통해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수 기자

대구교육청, 공립유치원 추가모집

대구교육청이 단설 및 병설유치원 22학급을 증설하고, 폐(휴)원 유치원의 재원생을 우선 수용하기 위한 추가모집을 한다.

추가모집은 폐(휴)원 유치원 유아(2018년 10월 1일 재원생 기준)를 신·증설 학급의 정

원(반편성)내에서 우선 선발(추첨)한다. 추가모집 잔여 인원은 일반모집으로 선발한다.

모집요강 및 추첨·선발결과 알리는 개별 유치원에서 실시하므로, 사전에 편성반, 모집인원, 추첨일정 및 장소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박지수 기자



지구의 생명, 물을 지켜주세요

소중한 물~!! 물을 아껴 쓰는 생활습관을 실천합시다

전국 초·중·고 학생 참가
(우승·준우승·3위 장학금 지급)

꿈나무육성

제5회 대구광역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2019 **gOLF** 대구광역일보

2월 25일 월요일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주최 (주)대구광역일보사
주관 대구광역일보골프클럽



참가규모 95팀(학생부 포함 384명)

2월 20일까지 선착순 마감
2월 25일(월) 오전 10시 30분 동시 티오프
2부 시상식 및 유명 연예인 공연
경주현대호텔 대연회장 저녁 6시

- ▣ 참가부문 및 자격: 전국 초·중·고 및 남·여 아마추어
 - ▣ 학생부 참가비: 15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 일반부 참가비: 19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 참가비 입금계좌: 농협 352-1400-8617-53
예금주: 박경선(대구광역일보골프클럽)
 - ▣ 접수기간: 12월 13일~2019년 2월 20일까지 선착순 마감
 - ▣ 참가문의: 대구광역일보 사업국(053)257-0000
(053)253-0000
-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일보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